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제1839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2200-500 www.kwangju.co.kr 2009년 6월 11일 (음력 5월 19일) 목요일

전국서 국정 성토

서울 10만 운집…광주·목포 등 6·10 국민대회
변호사·법학교수·철학자 등 시국선언 줄이어

6·10 항쟁 22주기를 맞아 6·10 범국민대회가 10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광주·부산·대구·울산·여수·순천·광양·목포·춘천·마산·창원·청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열렸다. 〈관련기사 4·6면〉

이날 서울 국민대회에는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도 불구,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쌍용자동차 노조원, 대학생, 시민 등 10만여 명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우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운영의 대전환 등을 촉구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일대에 152개 중대, 물대포 8대, 방송차 6대 등을 배치했으나 집회를 저지하지는 않았다.

이날 국민대회는 2부로 나뉘어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및 민주회복 문화제' 순으로 진행됐다.

집회 후 일부 시민들이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국민대회 주최 측은 이날 정오 성공회대성당에서 6월 항쟁 기념식과 오후 1시40분께는 중구 명동 향린교회에서 범민련 전 의장인 고(故) 강희남 목사의 영결식을 각각 가졌다. 또 오후 3시께 유가족은 대한문 앞 1개 차로 위에서 노제를 지냈다.

오후 1시50분부터 2시35분까지는 범국민대회 주최 측에 앞서 서울광장 집회 신고를 했던 한국자유총연맹 소속 300명이 시청역 2번 출구 앞에서 '승용차 요일제 캠페인'을 벌였으나 6·10 범국민대회 참가자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주최 측이 6·10 범국민대회 준비를 위해 방송·무대 차량을 서울광장 잔디밭으로 들이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전날부터 서울광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던 민주당 의원들과 민노당 의원들이 경찰과 몸싸움에 동참했으며 이 과정에서 7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정희 의원이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편, 이날도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앞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변호사 680명과 김승환 전북대 교수 등 법학 교수 195명 등 모두 875명이 서명했다.

또 학계에서 철학자 400여 명을 비롯해 전북지역 9개 대학 교수 475명과 연세대(162명), 인하대(67명), 한국외대(60명), 제주대(59명), 인제대(20명) 등 전국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다. 경희대·성공회대·중앙대·한국외대·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거나 교수들의 선언에 동조하는 성명을 냈다.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과 윤종모 성공회 주교, 김일상 원불교 교구장, 안하원 부산기독교협의회장 등 부산지역 종교계 인사 51명도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대화합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나무석 원장을 비롯, 지역 국회의원, 각 기관·단체장 등이 개원을 알리는 테이프를 자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5천여 명의 노인들이 타운을 찾아 관련 시설을 이용했다. ▶관련기사 7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내 최대 빛고을 노인타운 개관

노인들의 복합 여가 문화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10일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이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박광태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부지 10만1천67㎡에 연건평 2만266㎡규모로 지난 2003년부터 6년여 공사 끝에 완공됐다.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은 탁구와 당구, 게이트볼,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노래방, 댄스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컴퓨터와 외국어 강좌, 이·미용, 목욕 서비스가 제공되고, 물리치료실도 운영된다. 65세 이상은 1천원,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천원을 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먹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무료다. 이용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부터 시내 주요 지역과 건강타운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매주 월~금요일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 7일부터 송암 47번과 금남 55번, 봉선 75번 등 시내버스 3개 노선은 건강타운을 거치도록 조정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2018년 나로2호 순수 우리기술로 쏜다"

오늘 나로우주센터 준공식…안병만 장관 밝혀

한국 첫 우주센터로서 우주개발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11일 준공됨에 따라 한국이 우주 강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인터뷰 3면〉

특히 정부는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KSLV-Ⅰ)호 발사에 이어 내년 4월 과학위성을 한 차례 더 쏜 뒤 2018년에는 나로호 뒤를 이을 후속발사체인 한국형 발사체(KSLV-Ⅱ)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 발사하는 등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성발사의 경험을 축적하고 핵심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내년 4월께 과학위성 2호를 또 한번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뒤 오는 2018년에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발사체 기술까지 우리 기술로 만든 나로 2호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30일 발사 예정인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KSLV-Ⅰ) 호는 발사체 중 1단 부분(추진체)이 러시아와 한국 기술이 합쳐져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우주 발사체 및 위성에 대한 국내 독자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안 장관은 "우주 발사체는 상단과 1단(추진체) 부분으로 나뉘는데 1단 추진체가 러시아와 국내 기술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내 첨단 IT 기술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개발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8년에 발사될 위성은 크기도 커지고, 기능도 기존 지구만을 대상으로 한 위성이 아닌 우주위성이 될 것"이라며 "국내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능력 확보를 통해 우주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기술도 함께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달탐사 궤도선을, 2025년까지 달탐사 착륙선을 개발하는 등 우주탐사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오후 2시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소재 나로우주센터에서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최초 인공위성 발사장 준공식을 갖는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의 '대한민국의 꿈 그리고 우주'를 주제로 한 강연도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출전 20개팀 프로필 ▶18면

장마 예보 사라졌다 예측 무의미…중·단기 예보로 대체

피서객이나 농어민 등에게 여름철 최대 관심사였던 장마예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61년부터 발표해 오던 장마예보를 올해부터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형성됐을 때 주간예보나 월간·일일 예보 등 중·단기 예보와 함께 장마전선에 따른 강수 전망을 수시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그동안 매년 5월 하순께 여름철 예보를 통해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장마 시작 시점만 예측했을 뿐 종료 시점을 예보하지 않았으며, 올해부터는 시작은 물론 종료 시점도 예보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장마전선이 형성되기 전이나 소멸하고 나서도 강한 비가 빈번하게 내리는 등 여름철 강수 특성이 변한 상황에서 장마 시작과 종료를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Package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8000